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7

학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학 개

Haggai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2:9)

גְּדוֹל יְהוָה כְּבוֹד הַבַּיִת הַזֶּה הָאֲחֵרוֹן מִן־הָרִאשׁוֹן אָמַר
: יְהוָה צְבָאוֹת וּבִמְקוֹם הַזֶּה אֶתֵּן שְׁלוֹם נְאֻם יְהוָה צְבָאוֹת :

학개 차례

학개 서론	〈12제〉	445
제 1 장 학개가 성전의 재건을 촉구(促求)하다	〈20제〉	449
제 2 장 새 성전의 영광과 미래의 축복	〈23제〉	456

학개 특별 자료 차례

학개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448
제 1 장 〈화보 자료〉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	455

학개 서론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에는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저자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 (2) 또한 본서에는 학개 선지자가 3인칭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1:12, 13; 2:12-14) 본서의 저자를 학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 (3) 그러나 본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1:1, 3; 2:1, 10, 20)과 더불어 학개가 이 예언들을 선포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1:13; 2:2, 13, 14).
- (4) 그러므로 문체상 약간의 문체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주장(E. J. Young, M. F. Unger 등)처럼 본서의 저자를 선지자 학개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 (5) 한편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예언들을 선포한 선지자 ‘학개’의 이름을 따라 ‘학개’서(書)로 칭했다.

2. ㉡ 학개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학개라는 이름은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그의 부모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할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은 듯하다.
- (2) 그는 포로 기간 중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 왕 고레스(B. C. 539-529)가 유대인 중 일부를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귀환시킬 때(B. C. 536)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한다(대하 36:23; 스 1:1; 2:1).
- (3) 스가라 선지자보다 약 2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학개(참조, 스 1:1)는 민간 지도자 스룹바벨, 교회 지도자 여호수아 및 동료 선지자 스가라와 함께 백성을 독려(督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썼다(1:8).
- (4) 선지자 학개의 사역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1:1; 2:10), 그 어떤 예언자도 학개보다 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3. ㉢ 본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하라.

- ㉢ (1) 본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1세(B. C. 522-485)에 걸쳐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 즉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B. C. 539)한 후 B. C. 536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다(스 1:1).
- (3) 그때 바벨론 포로의 제1차 팔레스틴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학개 선지자가 처음으로 공중 앞에 나타나기 16년 전의 일이었다.
- (4) 그러나 고레스 왕이 죽게 되자 사마리아 총독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막을 건축하여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참조, 스 4:11, 12)고 페르시아에 고자질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 공사는 중단되어서 14년 동안 방치(放置)되어 버렸다.
- (5) 그 후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2년(B. C. 520)이었다. 그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다리오 왕 6년(B. C. 516)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4. ㉣ 본서의 저작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 (1) 본서는 다리오 왕 2년(B. C. 520)에 4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쓰여진 네 개의 연속된 계시로 구성되어 있다.
- (2) 첫번째 계시(1:1-11)는 제 6월(8, 9월)의 초하룻날에 선포되었다. 이 계시의 뒤를 이어 매년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종교적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제 7월(9, 10월)의 21일에 선포된 두번째 계시(2:1-9)가 기록되어 있다.
- (3) 두 계시 모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 (4) 나머지 두 계시는 제 9월(11, 12월)의 24일에 선포되었다. 세번째 계시(2:10-19)는 제사장들에게 던진 율법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고, 네번째 계시(2:20-23)는 스룹바벨 개인을 향해 말한 격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 ⓐ 본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였는가?

- Ⓐ (1) 본서에 나타난 예언자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
- (2) 특히 첫번째 예언(1:2-11)은 귀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것을 타이르고 있다.
- (3) 그리고 두번째 예언(2:1-9)은 격려의 메시지로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 쏟는 노력의 열매가 옛날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보다 더욱 큰 명예와 영광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 (4) 또한 세번째 예언(2:10-19)과 네번째 예언(2:20-23)은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제사장과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향한 말씀이다.
- (5) 이와 같이 본서는 어느 한 대상을 한정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비롯한 온 백성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다.
- (6) 이처럼 주의 전을 건축할 때에는 교회의 지도자만이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온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가 힘을 합하여 주의 전을 세워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참조, 대상 22:2; 느 2:18; 스 6:12).

6. ⓐ 학개가 본서의 예언을 선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 (1) 그 동기는 예루살렘 성전 옛 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었다.
- (2) 당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스 4:11, 12)로 성전을 짓는 일이 무산되자, 점점 성전을 짓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 일에 대한 회의(懷疑)만 깊어졌다.
- (3) 이때 학개 선지자는 지금 짓는 성전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하며 이 성전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2:1-19).
- (4) 이와 같이 본서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과 나태와 낙심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하여 선포된 것이다.

7. ⓐ 본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스가라서, 말라기서와 더불어 포로 후 기록된 선지자로서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던 귀환자들의 격려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
- (2) 특히 본서의 의미는 귀환 당시의 첫 목표였던 성전 건축에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로서 재해석할 때, 성전 건축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기 위한 준비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외형적인 성전 건축에만 열심을 쏟고 있지만 정작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실로 건축에 쏟는 우리의 노력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8. ㉠ 본서에 나타난 문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시귀(詩句)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장이 명료하여서 강력한 인상을 준다.
- (2) 또한 중심되는 말과 사상을 반복해서 언급하여 그 뜻을 강조하였는데, 서너 차례에 걸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자가 같은 절(1:12, 14; 2:2, 4)에서 언급되었다.
- (3) 그 외에도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 지니라’ 또는 ‘추억하여 보라’는 관용구가 1:5, 7 과 2:15, 18에서 나타나며 또한 1장에서 학개는 주의 전이 ‘황무하였다’고 두 차례나 언급(4, 9절) 하여서 나태한 유다인들을 각성시키려 하였다.
- (4) 이처럼 본서는 유다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강한 어투로 일관했다.

9. ㉠ 본서에 나타난 학개의 예언 활동을 시기별로 구분하라.

- ㉠ (1) 학개의 예언 활동 시기를 구분하여 보면 4개월간의 사역을 네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 (2) 첫째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즉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8월 중순부터 시작하였다(1:1).
- (3) 두번째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인데 태양력으로 9월 초순경쯤 된다(1:15).
- (4) 세번째는 한 달 후인 7월 21일이므로 양력으로 10월 초순이 된다(2:1).
- (5) 마지막 네번째 사역은 2개월 후인 9월 24일에 이루어졌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의 말씀이 임하셨다(2:10, 20).

10. ㉠ 본서는 몇 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1) 본서는 네 가지 독특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첫째 예언은 1:1-11인데 이 예언은 6월 1일에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성전을 폐허 상태로 내버려둔 백성들의 무관심을 책망하였다. 이러한 책망은 곧 효력을 나타내었는데 24일 후에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3) 두번째 예언(2:1-9)은 7월 21일에 전달된 것으로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초라한 성전과 저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경시(輕視)와 실망하는 마음을 바로잡아 주려는 목적을 띠었다.
- (4) 이사야(사 60:15-22)와 예레미야(렘 3:16, 17) 그리고 에스겔(겔 40:1-43:27)이 예언하기를 제 2성전은 첫번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열등한 성전을 짓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 (5) 이에 학개는 어떤 점에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더 큰 영광을 가지는지 그들에게 밝혀 주었다(2:5-9).
- (6) 세번째 예언(2:10-19)은 9월 24일에 전달된 것으로 겉보기로만 애써 수고하는 그들의 잘못(2:12-14)을 지적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성전 재건 사업에 힘쓰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
- (7) 마지막 네번째 예언(2:20-23)은 세번째 예언과 같은 날에 전달된 것으로 신정국(神政國)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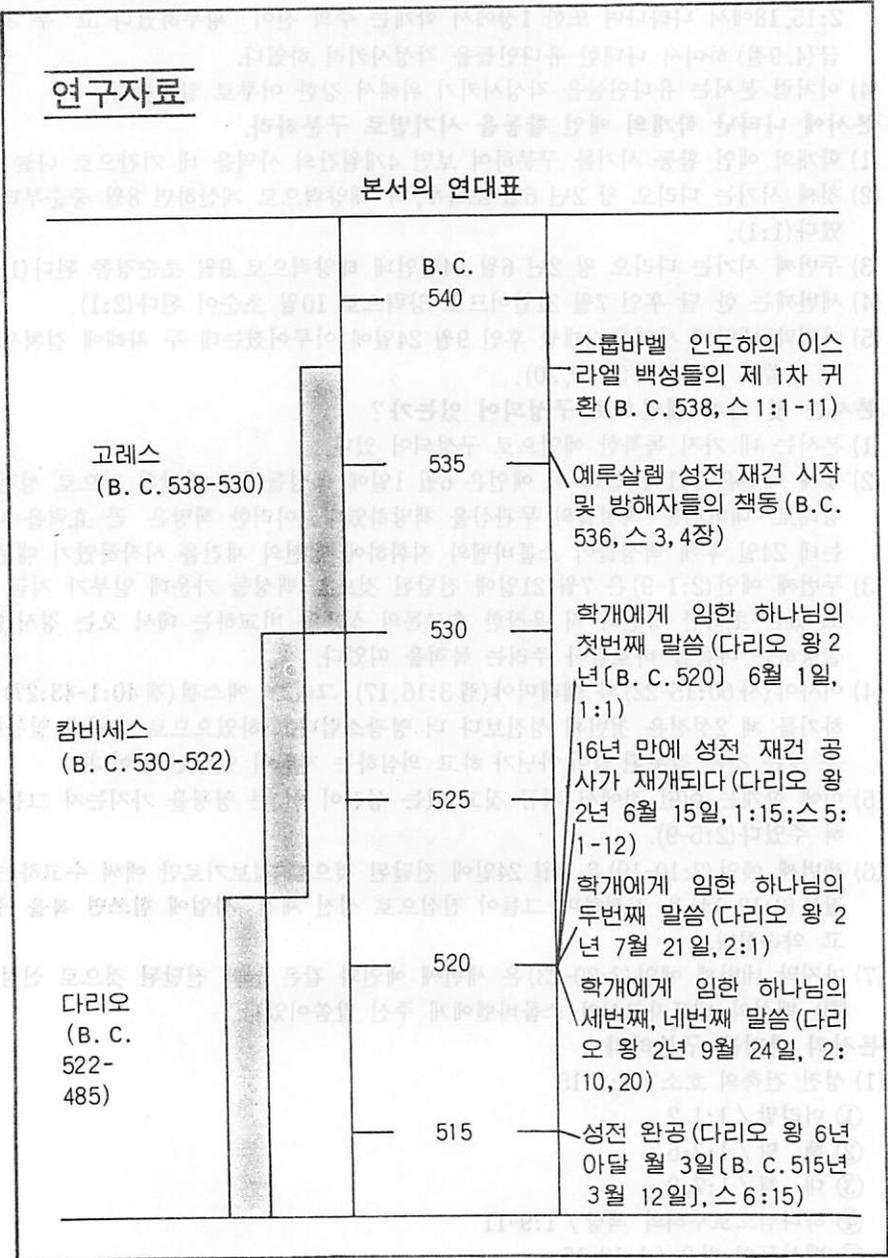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성전 건축의 호소 / 1:1-15
 - ① 머리말 / 1:1, 2
 - ② 책 망 / 1:3-6
 - ③ 대 책 / 1:7, 8
 - ④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 / 1:9-11
 - ⑤ 백성들의 반응 / 1:12-15

- (2) 주 안에서 담대할 것 / 2:1-9
- (3) 정결한 생활 / 2:10-19
- (4) 미래를 확신할 것 / 2:20-23

12.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2:9).



제 1 장 학개가 성전의 재건을 촉구(促求) 하다

단락구분 1 예언의 날짜와 그 예언에 관련있는 자들을 언급하다 / 2 성전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 백성들이 변명하다 / 3-4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변명에 대해 책망하시다 / 5-11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되돌아보도록 촉구하시다 / 12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결심하다 / 13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운 보장을 하시다 / 14-15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착수하다

1 다리오 왕 이 년 유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5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음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느니라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딸랐음이니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 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와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15 때는 다리오 왕 이 년 유월 이십 사 일이 었더라

1. ㉠ 본장에서 학개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 ㉠ (1) 그의 주된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태해져 있는 유다 백성을 각성시켜서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2) 이러한 각성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학개는 당시 유다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 즉 기근으로 식량에 곤란을 당하는 그들의 상태를 상기시켰다(6, 10, 11절).
- (3) 정작 이러한 학개의 호소는 좋은 결과를 맺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건축을 착수했기 때문이다.
- (4) 그때 학개의 외침은 신앙 생활에 나태해져 있고 자기의 이익만을 좇으려는 오늘날의

- Ⓐ (1)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 (2) 여기에서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아들인 스알디엘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1:12, 14; 2:2, 23; 스 3:2, 8; 5:2; 느 12:1; 마 1:12; 눅 3:27), 대상 3:19에서는 ‘브다야’의 아들로 나온다.
- (3)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說)이 있으나 스룹바벨이란 이름은 바벨론에서 흔히 쓰였기 때문에 동명 이인(同名異人)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제보에 속하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임에는 틀림없다(렘 23:5, 6; 마 1:12; 눅 3:27).
- (4) 또한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왕하 25:18-21)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된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마지막 대제사장인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다.
- (5) 이와 같이 유다 백성 최고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한 것은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시 119:34, 73).
- (6) 이처럼 오늘날에도 국가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 119:125).

5. ㉠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2절)

- Ⓐ (1)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 (2)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Artaxerxes, B. C. 465-428)가 죽은 후 그가 내린 칙서(스 4: 23, 24)의 구속력이 없어지므로 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역사(役事)를 시작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였다.
- (3)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냉담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좀더 편리한 대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탐욕과 불신앙을 감추려 하였다.
- (4) 즉 이 일은 많은 비용이 드는 대단히 큰 역사(役事)였으며 상대적으로 그들은 가난하므로 아직은 그러한 역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었던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들은 항상 자기가 취하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든다.
- (6)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삶이 미를 만큼 결코 길지 않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럴 때일 수록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5:16, 17).

6. ㉠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荒蕪)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거하였는가? (3, 4절)

- Ⓐ (1)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板壁)한 집에 거하였다.
- (2)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란 벽과 지붕이 완전히 있는 집에 조각한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그들은 참다운 종교 생활, 즉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중요시하지 않고 각자의 사생활(私生活)에만 치중하였다.
- (4)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농작물에 흉년이 드는 벌을 받아야 했다(11절).
- (5) 이처럼 우리들도 올바른 종교 생활의 터전인 주의 전을 세우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사생활에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참조, 잠 11: 21; 16:5; 19:5, 9).

7.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5절)

- ㉠** (1)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셨다.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는 태만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라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주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주를 위한 일에는 태만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참조, 렘 48:10).

8. **㉠**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4-6절)

- ㉠** (1) 유다 백성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洽足)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2)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그들이 행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게 했다.
 (3) 그것은 많이 뿌려도 넉넉히 얻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군이 샅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4) 정작 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기는커녕 그들 스스로가 속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5)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은 바보스러운 흥정을 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좋은 것을 없어질 시시한 것과 바꾸고, 마침내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잃게 된다(참조, 행 5:1-11).

9. **㉠**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제시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7절)

- ㉠** (1) 실망 중에 있던 스톱바벨과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백성들(1:2, 12)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성호(聖號)를(참조, 슄 4:6) 제시하셨다.
 (2) 이 말은 구약에서 약 300회 정도 사용되었고 본서에서만 14회나 사용되었다. 이 성호는 하나님의 언약(言約)과 직결되는 칭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확약(確約)하는 칭호이기도 하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셨다.
 (4)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 가운데 성도들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이끌고 계신다(참조, 엡 1:9, 10).

10. **㉠**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처럼 좋은 재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보다 얻기 쉬운 자재를 택하여 건축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 비싼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신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많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삼상 15:22).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시 147:11).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 형식적인 헌금으로 생색이나 내는 것보다도 행위가 온전하며(잠 11:20) 진실히 행하여(잠 12:22)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잠 15:8)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시 32:5; 스 10:11).

11.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실망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의 집이 황무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 집에 온 정신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2) 즉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게을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여호와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자기 육신의 번영과 안일만을 생각한다면 그 앞에는 여호와와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다(참조, 렘 44:18).

12. ㉠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10절)

- ㉠ (1)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產物)을 그쳤다.
 (2) 여기에서 '이슬'이란 히브리어로 <탈>인데 이 말은 '비'라고도 번역된다.
 (3) 그리고 '그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가두다', '막다', '거두다' 등의 뜻으로 단지 일시적인 징계를 나타낸다(참조, 시 74:11; 렘 32:3).
 (4) 그러므로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다'란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작물이 생육을 멈추어 소출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므로 천지의 운행과 자연까지도 움직이시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며 징계로 환난을 주시기도 하셨다(참조, 시 66:7).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의 뜻을 거스려 범죄한다면 징계를 주실 터이지만(삼하 7:14) 참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무궁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히 12:17).

13. ㉠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재(旱災)가 어디에 임하였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재는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다.
 (2) 여기에서 '한재'는 히브리어로 <호렘>인데 '황폐'라고도 번역된다.
 (3) 따라서 모든 일에 한재가 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축복하여 주신 소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두어서 황폐케 되었다는 뜻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규명 하셔서 드러나지 아니한 죄까지도 징계하신다(참조, 마 5:26; 눅 12:59).

14. ㉠ 학개의 외침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2절)

- ㉠ (1)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다.
 (2) 옛날 유다가 패망할 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던 그들의 고집(렘 22:21)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聽從)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그러한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의 전(殿) 역사(役事)'(14절)로 나타났다.
 (3)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당한 과거의 고통(참조, 애 2:11; 3:2-6)이 아직도 생생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엠 6:19; 계 22:7).

15. ㉠ 유다 백성들이 학개가 전한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들은 학개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러러보았고 그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능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2) 실로 예언이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늘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늘의 사자를 맞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 (3) 참된 신앙은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이 전하는 음성을 청종하는 데서 저절로 나타난다(참조, 사 50:10).

16. **㉠** 본절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칭하였는가? (13절)

- ㉠** (1) 학개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자(使者)라고 칭하였다.
- (2) 여기에서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악>인데 구약 시대 전기에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러 온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만 써왔으나(창 21:17;31:11) 후대에서는 선지자들(사 44:26)과 제사장들(말 2:7)에게도 사용되었다.
- (3) 그렇지만 선지자 개인을 가리켜 사자라고 하기는 학개 선지자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 (4) 이와 같이 학개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한 것은 학개를 통하여 알려 준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17.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위로와 축복의 선물이었다(참조, 렘 31:1, 31-33).
- (3)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앞으로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니(참조, 요 1:10-14).

18. **㉠**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14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었다.
- (2) 여기에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무아흐>인데 '영'(spirit)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흥분시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아트>인데 '깨다'라는 의미가 있다. 즉 대상 5:26과 대하 21:16, 스 1:15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대체로 '자극하여 일깨우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4)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각성시켜 일깨웠다는 뜻이다.
- (5) 이와 같이 주의 백성된 우리들도 영적으로 나태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주의 말씀을 힘입고 각성하여야 한다(참조, 겔 3:21).

19. **㉠**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나서 어떤 일에 착수하였는가? (14절)

- ㉠** (1)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한 후 여호와의 전(殿) 역사(役事)를 착수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이란 말을 원문(原文)에서 살펴보면 '안에서'라는 뜻의 <베>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의 외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3) 이와 같이 B. C. 536년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이래 15년 만에 다시 공사를 계속하였다(참조, 서론 ㉠ 3).
- (4)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나 그 결과는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만 있을 뿐이다(참조, 신 5:29; 살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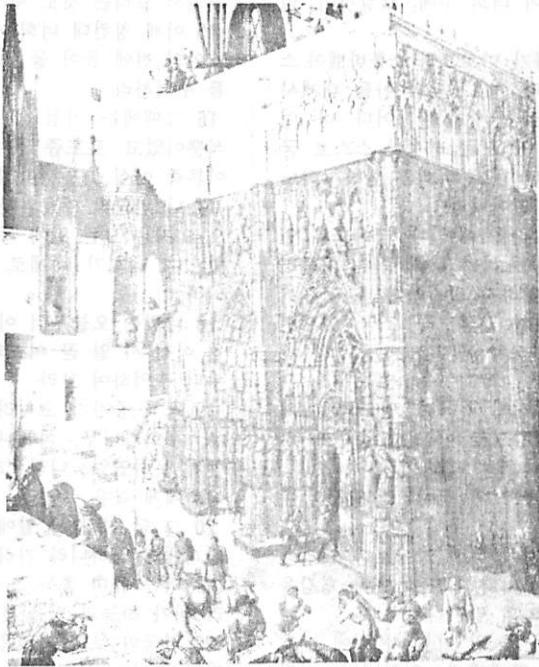
20. **㉠**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역사를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15절)

- ㉠** (1)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역사를 시작한 때는 다리오 왕(B.C. 522-485) 2년 6월 24일이었다.

- (2) 여기에서 6월 24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바쁜 때였던가를 밝혀 주고 있다.
- (3) 즉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 1주일 간은 초막절, 22일에는 대성회가 있으므로 그전에 추수를 마쳐야 하는 그들에게는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연중 가장 바쁜 때이었다.
- (4) 그러나 그들은 크게 분발하여 모든 개인적인 일을 억제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주의 일을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모든 사사로운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마6:33).

화보자료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 장 푸케의 그림으로서 15세기경 「유대 고대지」의 사본에 수록된 삽화이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B. C.520)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번째 말씀은 고레스 왕 통치 시대에 시작되다가 중단되고 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이었다(1-11절). 이에 학개는 유대 백성들을 모아 놓고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었으며 백성들은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2-14절). 이렇게 하여 재개된 공사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B. C.515)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스6:15).

제 2 장 새 성전의 영광과 미래의 축복

단락구분 1-9 새 성전이 옛날 성전보다 더 영화롭다고 선언하시다 / 10-19 성전 건축을 게을리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시다 / 20-23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신임과 사랑을 얻다

1 칠 월 곧 그 달 이십 일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니라

4 그러나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 다리오 왕 이년 구 월 이십 사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품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어대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13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 들 위에 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16 그때에는 이십 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심석편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그릇을 길으려 이른즉 이십 그릇뿐이었었느니라

17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18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구월 이십 사 일 곧 여호와와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19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0 그 달 이십 사 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 열국의 보좌를 엮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엮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엮드러지리라

23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대 총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A** (1) 본장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열심을 격려하기 위해 다리오 왕 2년 7월과 9월에 선포한 세 주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 (2) 첫번째 말씀(1-9절)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현재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걸 모 습으로는 그렇지 못하나 영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하셨다.
- (3) 두번째 말씀(10-19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게을리한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징계를 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
- (4) 마지막 말씀(20-23절)에서 경건과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스룹바벨이 모든 대적을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세울 메시아의 예표(豫表)가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다.
- (5)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또한 그들의 삶에 풍요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깨우쳐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해 가신다.
- (6)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삶의 기쁨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참조, 렘31:17).

2. **Q**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학개에게 다시 임하였는가? (1절)

- A** (1) 여호와의 말씀은 7월 21일에 학개에게 다시 임하였다.
- (2) 여기에서 '7월 21일'은 수장절(레23:33-43; 민29:12-38; 신16:13-17)이 끝나는 날로서 그 기간 중 가장 절정을 이루는 때였다. 왜냐하면 다음 22일은 대성회(레23:36)가 있는 날로서 각자들의 초막에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3) 본래 수장절은 추수를 모두 끝낸 다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이 수장절은 1년의 마지막에 지켰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중 가장 절정을 이루는 수장절 마지막 날을 택하여 학개에게 자신이 전해 준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적절한 때를 이용하신다(참조, 갈4:4).

3. **Q** 선지자는 남아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3절)

- A** (1) 선지자는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 전(殿)의 이전(以前)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였다.
- (2) 여기에서 '이 전(殿)의 이전(以前) 영광'이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의미한다(대상22:2-4, 14-16).
- (3)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모든 기술자들을 멀리 해외에서 고용해 왔고(왕상5:18), 성전의 내소와 외소를 정금으로 입힐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다(왕상6:20-22).
- (4) 학개는 이러 질문으로 그들의 시각을 과거로 돌린 다음 지금의 성전과 비교하게 했다.
- (5) 실로 과거의 영광은 우리에게 깊은 향수를 가져다 주지만 열심이었던 과거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 생활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참조, 겔33:12).

4. **Q**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을 보았던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3절)

- A** (1)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란 말의 원뜻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이다. 즉 유다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그들이 애착을 느끼지 못한 것은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궤와 성구(聖具)

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B. C. 586년 유다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법궤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3:16).
- (5)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와 보좌가 됨으로써(렘 3:17) 법궤의 상징적 의미가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믿음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렘 31:31-34).
- (6)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후 새 하늘에 대한 환상에서(계 11:18)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계 11:19). 그것은 법궤가 계속적으로 나타내어왔던 구속 언약(救贖言約)의 궁극적인 성취를 암시한다.
- (7)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연연(戀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외형적인 것에 신앙이 흔들리고 실망해서는 안 되며 오직 살아 계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시 73:25; 119:20; 고전 14:12).

5. **㉠**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힘을 내라’는 뜻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각각 불러 굳세게 하라고 이르신 것은 저들이 결심하여 성전 건축에 다같이 참여해야 할 것을 권면하신 말씀이다.
- (4) 이와 같이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고 주의 나라 건설에 용기와 힘을 다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10).

6. **㉠**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 (2) 여기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므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는 것이다(참조, 출 17:5; 29:45, 46).
- (3) 즉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다(참조, 출 32:1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주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암 9:15).

7. **㉠** 무엇이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있었는가? (5절)

- ㉠** (1) 그들 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이었다.
- (2)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메데트> 인데 그 의미는 분사형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권능을 가지시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이와 같이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과거에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마 1:23; 28:20).

8. **㉠**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조금 있으면’이란 말 다음에 ‘한번 더’라는 중요한 말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다.

- (3) 그래서 원문에 의지하여 ‘한번 더’란 뜻을 살펴보면 구속사의 큰 흐름인 노아의 홍수 사건(창6:5-8)과 출애굽 사건(출6:6-8)과의 연속을 의미하며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한다.
- (4) 다시 말하자면 앞서 보여 주었던 구속의 역사가 한번 더 크게 일어나겠다는 예언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참조, 2:21, 22; 히 12:18, 19, 26, 27).
- (5) 이 예언은 학개 선지자의 선포가 있는 지 517년 후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졌다.

9. ㉠ 선지자는 만국이 진동함과 더불어 무엇이 이르겠다고 말하였는가? (7절)

- ㉠ (1) 선지자는 만국이 진동함과 더불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고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만국의 보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벰전 2:4-6).
- (3) 또한 만국이 진동한다’는 말은 초자연적 능력으로 모든 민족들이 회개케 되리라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만국이 진동함과 더불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는 귀절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하 만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있다.

10. ㉠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떤 물건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은과 금’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물자로서의 은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넘쳐하고 많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즉 유다 백성들이 금과 은 같은 귀중품으로 성전을 장식하지 못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외형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심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많은 성전도 값 비싼 치장이나 혹은 좋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주의 영광된 전이 될 것이다(참조, 9절; 마 12:6; 요 3:19).

11. ㉠ ‘이 전(殿)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귀절의 의미는 첫 성전과 둘째 성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중에 건축하는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는 말이다.
- (2) 여기에서 ‘첫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을 짓는 데는 금이 3,400t 은이 34,000t이 소요되었다(대상 22:14). 그러므로 모든 기구와 둘째까지도 순금이었고(대한 4:7, 8; 왕상 7:48-50) 또한 이곳에는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다(왕상 8:10, 11).
- (3) 또한 ‘둘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과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었으며 금과 은으로 꾸미지 않았던 허술한 성전이었다(참조, 1:8).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보다 허술한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것은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되신(제 21:22)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殿)에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한다(요 1:14).
- (5) 이와 같이 산골 속에 묻혀 있는 교회나 농어촌의 천막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큰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마 12:6; 요 1:14).

12. ㉠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대하여 질문하였는가? (11, 12절)

- ㉠ (1)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제사 의식에 대해, 즉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였다.

- (2) 이와 같은 질문은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율법에 대하여 물어 본 것으로,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제단을 섬기는 일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렘 18:18; 말 2:7).
- (3) 본래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호 4:1-10).
- (4) 이처럼 학개는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아는 율법을 들어서 진리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다.
- (5) 이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태만히 하게 되면 정작 당연히 해야 할 일까지도 망각(妄覺)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해야 한다(참조, 고전 4:2).

13. ㉠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 질문의 의미는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면 그 옷은 거룩하여지지만(레 6:27) 그 옷으로 다시 ‘떡’, ‘국’, ‘포도주’와 같은 음식을 쌀지라도 그 음식이 거룩하여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 (2)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의식적으로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종교적인 의식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주 안의 성도들도 의식적인 교회의 예배만 가지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참조, 딤후 4:5).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야지만 거룩할 수 있다(약 1:27).

14. ㉠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다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 ㉠ (1) 그것들 역시 부정하게 된다(레 11:28; 22:4).
- (2)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더럽혀진 이상 아무리 회생 제물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그들의 노력은 헛될 뿐만 아니라 바치는 제물도 무엇이나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는 말이다.
- (3) 다시 말하자면 죄지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 (4)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악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 (5) 지금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자.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치우쳐 그것만 행했다고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신앙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 이면(異面)에 있는 순결한 마음과 사랑이 따라야 한다(참조, 사 1:16-20).

15. ㉠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탄식하셨다.
- (2)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제단에 드린 회생 제물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거룩한 고기와 제단이 너희의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너희는 세속의 연락 뿐 아니라 회생 제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부정을 막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4) 실로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背馳)되지 않도록

날마다의 생활에서 근신(謹身)의 생활과 순종의 생활이 있어야겠다(참조, 삼상 15:22).

16. **㉠**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를 회상하라고 말하였는가? (15절)

- ㉠** (1) '여호와와 전에 돌이 돌 위에 첩(疊)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追憶)하라' 고 말하였다.
 (2) 즉 이 말은 그들이 귀환 당시에 폐허가 된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때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중단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3)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힘들여 지어 놓은 모든 농산물을 하나님의 진노인 폭풍과 우박에 망쳐 버리고 말았다(16절). 이 사실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4)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핑계될 때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5) 정작 땅위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든다(참조, 호 5:15; 살전 3:3).

17. **㉠** 성전 건축을 중단한 때에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16절)

- ㉠** (1) 성전 건축을 중단한 때에 이십 석 곡식 더미가 십 석뿐이고, 포도즙통의 포도즙 오십 그릇이 이십 그릇으로 되었다.
 (2)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죄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의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의 일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소산이 메말라 버리고 말 것이다(참조, 신 11:17; 욥 1:11).

18. **㉠**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17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쳤으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2) 즉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더우기 환난이 어디서, 왜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더욱 큰 환난으로 치실 것이다(참조, 욥 17:4; 잠 28:5; 사 1:3; 44:18).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더욱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호 4:14; 마 24:39).

19. **㉠**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8,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오늘'이란 9월 24일을 가리키는 말이다(2:18). 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이다.
 (3)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시 환난이 없을 것이며, 온갖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여 바로 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신 32:10).
 (5)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거할지라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시 37:28; 145:20; 146:9).

20. **㉠**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명하시길 당신의 명령을 누구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셨는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명하시길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유다 총독'이란 말이 70인역(LXX)에는 '유다 지파의'라고 되어 있다.
- (3) 이와 같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됨을 알 수가 있다(창 49:8-10).
- (4)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일 뿐만 아니라(1:1;2:2, 20), 그는 여호와와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야 할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인 것이다.

21.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보좌를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보좌'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국들의 모든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열국의 보좌를 얻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을 선포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인 열국의 권세를 꺾어 버리시겠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일시에 꺾어 버리실 것이다(참조, 삼상 2:10; 행 18:10).

22. ㉠ 병거와 말을 탄 자들이 누구의 칼에 엎드려질 것인가? (22절)

- ㉠ (1) 병거와 말을 탄 자들은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 (2) 여기에서 '동무들이 칼에 엎드려지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위에 있는 열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 파멸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3)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다가 이처럼 자기들끼리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참조, 삿 7:22; 삼상 14:20).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도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므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 (4) 앞으로 있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자는 그들이 쌓은 악으로 다 파멸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요 10:27-29).

23. ㉠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3절)

- ㉠ (1)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내가 너를 취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에카하카>로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은 '선택하여 같이 산다'라는 뜻이다(신 4:20). 특히 이 말은 결혼 상대자를 택할 때 쓰여진 말이다(참조, 창 24:4; 출 6:7).
- (3) 또한 '인을 삼으리니'라는 말은 왕이 반지로 인을 치면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확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에 8:8).
- (4) 스룹바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를 인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을 존중하시겠다는 것이다.
- (5) 당시에는 인장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소중히 했다. 왜냐하면 인장은 바로 신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렘 22:24).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했다. 이 비유의 의미는 스룹바벨이 비록 은 세상의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리라는 뜻이다.
- (6)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으나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과 멸시를 받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 우편에 앉게 하셨다(참조, 막 16:19).
- (7)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벧전 5:4).